2026년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11/20(금)

저녁 7시 전석 5,000원

아리랑센터 아리랑홀

2026

티켓문의

033-560-3017(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만 7세이상 관람가

"굽이치는 선율을 따라,
잊고 있던 나의 뿌리를 만나다"

Soul String Arirang

소울 스트링 아리랑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본 사업은 2026년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아 추진되었음.

아리랑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공동체적 감동을
새롭게 경험하는 특별한 공연-
〈소울스트링 아리랑〉

아리랑, 시간을 넘어 영혼을 잇다

낯선 땅 독일에서 살아온 파독 광부의 딸과 그의 딸이 아버지의 고향, 대한민국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잊혀진 기억과 그리움, 세대를 잇는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진도에서 경상도, 경기도를 거쳐 강원도 정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삶과 희로애락이 담긴 아리랑의 선율을 따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통의 울림, 현대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의 전통 소리와 춤, 역동적인 연희가 현대적 음악과 퍼포먼스, 첨단 무대영상과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감동을 진도아리랑의 설장구, 경상도 김천북의 역동성, 경기아리랑의 아름다운 춤사위, 현대적 비보잉과 정선아리랑의 장엄한 울림까지. 지역마다 살아 숨 쉬는 아리랑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하나의 무대로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음악과 춤, 영상과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혼과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표현한다.

아리랑의 여정, 하나의 무대에서 피어나는 감동

서로 다른 지역의 삶과 정서를 품고 이어져 온 아리랑이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적 서사로 전통의 깊이를 담은 국악 선율과 역동적인 타악 퍼포먼스, 섬세한 한국무용과 현대적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아리랑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의 음악적 색채와 예술적 표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전통예술이 지닌 원형의 가치와 현대적 창작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소리에서 움직임으로, 움직임에서 하나의 거대한 울림으로 확장되는 무대.
〈소울스트링 아리랑〉은 아리랑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공동체적 감동을 새롭게 경험하는 특별한 공연이다.

인사말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작 음악극 「Soul String 아리랑(영혼을 울리는 아리랑)」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 희망과 염원을 담아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대와 지역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특히 정선아리랑은 정선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빚어낸 고유한 소리로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Soul String 아리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선아리랑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 삶 속에 깃든 희망과 사랑을 아리랑의 선율로 풀어내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깊은 울림과 무한한 가능성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선의 문화적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선아리랑이 세계와 소통하며 더 큰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끝없는 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정선아리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와 세계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선아리랑의 힘찬 도약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 종 수**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한국인이라면 아리랑, 이 세 글자만 들어도 각자 드는
감정, 흥, 한 등이 다양하게 생각될 것이다.
그렇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역사, 감정, 문화를 담고 있는
우리 민족 그 자체이다.
어느덧 우리 공동체에는 다른 민족들이 섞여 지내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아리랑 선율은 한류라는 물결을 타고 세계인의 선율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선율이 지구를 돌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듯이
과거 우리 선조들의 선율들을 지금 우린 어떻게 즐기고 느끼는지 만나보고 싶었다.
모든 생각 내려두고,
아리랑 선율에 한 판 놀다 가시지요.

한국의 혼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선율
옛 그리고 오늘 -

시놉시스 Synopsis

아리랑, 시간을 건너다

파독 광부의 딸로 태어나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여인이 있다.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사람들과 살아가며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 온 그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궁금한 나라가 있었다.
아버지가 태어나고, 떠나온 나라.
자신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나라, 한국.
그녀는
K-POP을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향한다.

잊혀진 기억과 그리움, 이별과 귀환의 시간이 아리랑의 선율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서로 다른 세대와 대륙을 건너온 모녀는 마침내 하나의 노래를 완성한다.

그것은 과거의 아리랑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부르는 새로운 아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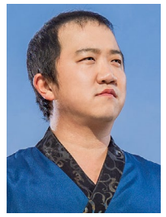
시간을 건너,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노래.

출연진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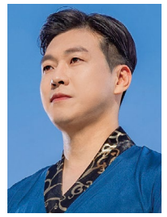
연희&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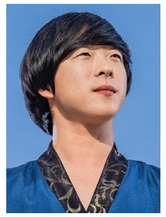

연희&타악_ 성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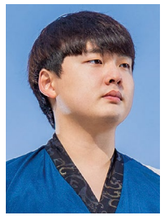

연희&타악_박영훈


연희&타악_이재식


연희&타악_김양호


연희&타악_박평광


연희&타악_김동혁


연희&타악_김주현


연희&타악_심재랑


연희&타악_고명기


연희&타악_이종섭


연희&타악_박달나무


연희&타악_김도근


연희&타악_최영순


연희&타악_이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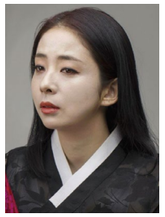

연희&타악_박하나

소리


정선아리랑_홍동주


경기소리_최진실


경기소리_김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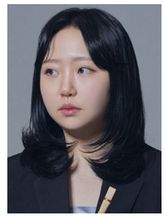

남도소리_김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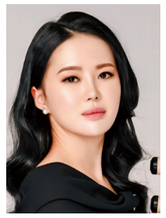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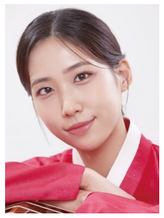

캘리그래피_김정기

연주


대금_강병구


피리&태평소_박하은


해금_황청하


아쟁_김지현


퍼커션_유용성


신디_김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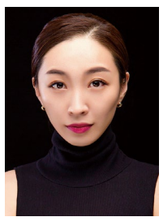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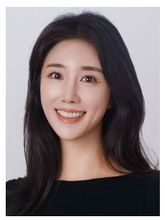

배우_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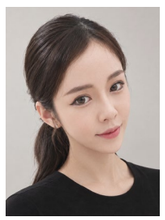

배우_최윤서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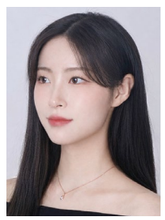

무용_유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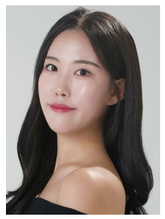

무용_이지연


무용_최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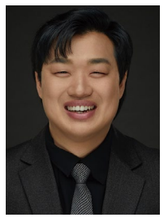

무용_황수림


무용_조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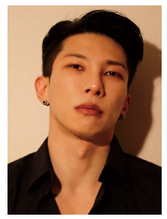

무용_노연정


무용_권예림


무용_박지혜


기접_김광수

비보이


비보이_이성민


비보이_김성준

밴드


드럼_남성현

일렉기타_채태식

베이스_노재환

바이올린_남윤주

바이올린_이세영

가야금_김영우

제작

총감독_이재원

연출_임한창

조연출_홍영은

예술감독_강영구

연희감독_강주석

음악감독_최여영

안무가_유지혜

무대감독_민경

기술감독_서원진

Production Crew

음향감독_박준식
조명감독_이후림
영상_박동일
기획_박종령
프로젝트 매니저_이은지
표지 일러스트_최한윤
홍보·디자인_디자인퍼플

2026년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Soul String Arirang

소울 스트링 아리랑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